

행복택시 충전식 카드 교체

무주군, 쿠폰 배달 지연·명의도용 등 문제점 해소 위해

무주군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행복택시 운영 방식을 쿠폰에서 충전식 카드형으로 교체한다고 19일 밝혔다.

바코드 쿠폰 배부 시 배달 지연과 명의도용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충전식 카드시스템으로 교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기존 쿠폰과 다른 점은 충전식 카드를 발급, 매월 4회 충전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바코드 쿠폰같이 매월 쿠폰을 발급하지 않는다. 카드사용 방법은 택시를 이용할 때 카드를 기사의 핸드폰 어플에 인식하면 된다.

앞서 군은 지난 13일 무주군청 전통문화의 집 2층에서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유지현 연구관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행복택시 담당 기사들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카드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교육 내용은 카드를 DRT 수요 응답형 핸드폰 어플에 인식시키는 방법이다.

쿠폰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재발급은 산업경제과 교통행정팀(063-320-2361)에 문의하면 된다.

산업경제과 이상형 과장은 "2018년부터 시행한 농촌형 교통모델인 행복택시 사업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행

복택시 카드사용을 모니터링 해 투명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내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자가 승용차가 없는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관내 행복택시 운영은 총 54개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993명의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운행거리는 마을에서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300m 이상인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상이다.

한편, 군은 충전식 카드 도입이 정착될 경우 '콜센터'를 운영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및 농촌 고령화, 부녀화 등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 직원 영농철 일손돕기를 실시한다.

장수군, 영농철 일손돕기 총력

700여명 전 직원 나서 농촌 인력 문제 해소 위해 추진

장수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및 농촌 고령화, 부녀화 등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 직원 영농철 일손돕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까지 진행되는 일손돕기는 장수군 소속 700여명의 직원이 사과, 사과, 모내기, 고추치주목살치, 채소 순파주기, 자두, 배 숙기 및 봉지씌우기, 마늘수확, 양파수확, 감자, 콩, 옥수수 파종 등 일손돕기를 펼친다.

대상은 독거농가, 장애농가, 기초수급 대상농가를 포함한 과수 채소 등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 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일손돕기를 통해 농촌 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장수사과 조생종(홍로) 적과를 작기에 해 고품질 장수사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상시 착용, 작업 간 일정거리 유지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할 계획이며,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업도구, 필요물품, 도시락 등은 자체적으로 준비해 일손돕기를 추진한다.

장영수 군수는 "일손이 부족하여 애를 태우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농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손돕기를 통해 농촌 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장수사과 조생종(홍로) 적과를 작기에 해 고품질 장수사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습담배수개선 시범사업 추진

원활한 배수·토질 개선 기여 등 기대

진안군은 군비 8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습담배수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이른바 '수렁'이라고 불리는 배수가 불량한 습담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하에 유공관 및 무공관을 매설해 지중 배수경로를 확보 후 기존 배수로로 유도해 원활한 배수를 돕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습담배수개선사업을 통해 비 작물 재배에만 국한됐던 농경지를 개량하여 농기계의 진출입 및 각종 발작물 재배에도 용이하도록 토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영농불리여건 농경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읍면(진안, 용담,



진안군은 2021년 습담배수개선 시범사업 추진한다.(사진은 사업 추진 후 사진)

안천, 동향, 백운, 성수, 마령)에서 총 179개소가 접수됐으며 사업규모는 PE관 2만1,629m, 집수정 189개로 총 수혜면적이 약 40ha에 달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2021년 본예산 8억을 확보하여 진안읍·용담면·동향면·백운면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착공했으며,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안천면·성수면·마령면 등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호응도 파악하고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세 등 국비 확보 등으로 지속적으로 습담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습담배수개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추후에도 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사업을 확대 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식품·공중위생업소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강화 홍보

장수군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및 기본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에 따라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식당, 카페, 목욕장, 이·미용업 및 숙박업소 등 472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안내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장영수 군수가 직접 참여해 강화된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안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등을 안내했다.

특히, 기존에 다수의 출입자가 방문할 경우 출입자 수기명부에 '~와 0명'으로 작성하는 방식에서 모든 방문객을 출입자 명부에 작성하도록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고 업소 입구에 동시이용 가능인원 및 방역수칙 게시를 당부했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 4차유행의 우려가 커진 속에서 식품·공중위생업소에 강화된 방역수칙 안내 홍보와 더불어 철저한 점검을 펼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방역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경찰

과 함께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방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인 만큼 시설 이용자 및 영업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장수군은 중점·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 및 유흥시설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거리두기 방침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행정조치 하는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점검 및 방역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꽃묘 2만9000본 군민에게 무료 분양

무주군이 봄철을 맞아 금계국을 비롯한 꽃양귀비, 구절초 등 꽃묘 2만9,000본을 군민들에게 무료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꽃묘 분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어 봄 분위기를 살린다는 취지다. 꽃묘는 무주군이 자체 생산한 것이어서 예산 절감 및 지역 환경정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관기관 및 마을단위에 무료로 분양할 계획이며 학교와 유관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팀, 각 마을에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한 분량에 대해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분양할 예정이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연구개발팀 이장원 팀장은 "꽃이 주는 좋은 기운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양질의 꽃묘를 재배·공급하는데 힘써 아름다운 무주, 건강한 무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소방서, 봄철 농번기 농기계 사고 예방 당부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19일 봄철 농번기를 맞아 관내 크고 작은 농기계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농촌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일손 부족이 현저하고, 농기계에 대한 의존도와 사용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에 동반되는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경운기나 이앙기 등 대부분의 농기계는 나이 및 운전 요건이 없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충분한 사용법 및 안전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농기계를 사용하여 농기계사고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이에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 전·후 정비점검 철저 ▲농기계 조작요령 숙지 ▲음주 후 농기계 운전 금지 ▲추락·전도 사고 위험성이 높은 농로나 내리막길, 모퉁이에서 서행 등을 준수해야 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